

13-242 to 13-245: 천주복귀의 역군이 되자

hdhstudy.com/1964/13-242-to-13-245-%ec%b2%9c%ec%a3%bc%eb%b3%b5%ea%b7%80%ec%9d%98-%ec%97%ad%ea%b5%

천주복귀의 역군이 되자

1964.03.29 (일), 한국 전본부교회

13-242

천주복귀의 역군이 되자

전세계에 널리 있는 통일교회 신도들에게 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노정에 있었던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중대한 책임과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무리가 우리 통일식구들입니다.

13-242

최고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통일식구들

이 땅 위에 실현되었어야 할 하나님의 창조이념이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선을 추구하는 우리 선조들은 지금까지 있는 정성을 다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해 싸워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과 인류의 소망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책임과 사명은 이 시대의 우리가 아니면 완결지을 수 없고,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요, 인류의 원수인 사탄도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입장에 서 있는 우리들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역사상에서 그 시대의 책임을 짊어졌던 그 어떤 지도자보다도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본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을 중심삼고 개인과 가정, 국가, 세계, 천주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랑을 중심삼은 평화의 세계를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을 전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참다운 개인과 가정, 국가, 세계, 천주가 되지 못하고 슬픔을 동반한 개인과 가정, 국가, 세계, 천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것을 복귀하기 위하여 수고해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도 복귀의 뜻을 따라 나왔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개인이 복귀되고, 가정이 복귀되며, 국가, 세계, 천주가 복귀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은 참다운 개인으로부터 가정, 국가, 세계, 천주까지 어떻게 복귀할 것이며, 이 천주가 하나님의 심정에 어떻게 일치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를 걸어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고생해 왔습니다.

선생님은 원리를 찾고 난 후에 이것이 과연 인류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았고, 또 이 원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이념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아가 이것을 달성하려면 지금까지 역사상에 그 누구도 가지 못한 십자가의 길을 거쳐야 될 것이며, 또 지금까지 누구도 겪지 못한 고난의 길을 헤쳐 나가야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낮은 영계로부터 높은 영계에 이르기까지 승리의 기반을 닦아야 할 책임과 사명을 느껴 투쟁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상에 있어서도 역시 영계의 승리적 기반을 발판으로 하여, 가장 미천한 자리에서부터 최고의 기준까지 다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싸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식구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3-243

하나님의 수고를 본받자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소망하시던, 참다운 심정을 통할 수 있는 한 사람, 그가 바로 복귀역사노정에서 찾아나온 단 하나의 소망의 존재입니다. 그 한 개인이 복귀됨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가정, 하나의 국가가 복귀되며 나아가 세계와 천주가 복귀된다는 것을 우리 식구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이 하늘땅을 중심삼고 승리하는 날에는, 그 승리는 개인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주의 승리가 되

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위주로 한 가정이 승리한다는 것은 일개 가정의 승리만이 아니라 천주의 가정적인 승리의 기반을 닦는 것이요, 한 가정을 위주로 한 국가가 승리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승리의 기반을 닦는 것일 뿐 아니라, 천지간에 새로운 국가의 승리의 기반을 닦는 것일 뿐 아니라, 천지간에 새로운 국가의 승리의 기반을 닦는 것이 됩니다. 이리하여 이 세계에 천주복귀의 기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러한 사명, 즉 개인복귀, 가정복귀 더 나아가서는 민족복귀노정을 책임지고 지금까지 투쟁을 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 통일식구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계에 널려 있는 우리 식구들은 선생님을 위주로 하여 종족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또한 문화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생활상태 등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의 이념을 중심삼고 일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또 이 하나의 이념을 위주로 하여 일체를 이룬 기준 밑에서 행동통일, 생활통일, 심정통일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생님의 슬픔을 여러분의 슬픔으로 체휼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단 현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과 앞으로 올 미래세계에까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느끼는 우리는 새로운 역사적인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세워야 되고 가정적,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러한 천주복귀의 전통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 지금까지 3년노정, 혹은 4년노정을 목표로 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상에 서 있는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 투쟁해 나가야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찾아오는 노정에서 사탄과 대결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수고하신 그 노정을 본받아 우리들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을 지니시고, 종의 몸을 쓰시고,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리시며,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시기에 역사노정 가운데 숭한 수고를 해 나오셨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부모를 찾아 모시기 위해 그러한 땀과 눈물과 피를 대신 흘려야 하고, 부모의 심정을 체휼하기 위하여 종의 몸을 쓰고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오기에 수고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아 가기에 수고하는 이 노정에서 맺어진 눈물을 우리 개체만을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는 눈물이요, 그 땀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는 땀입니다. 그 피와 희생도 개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 흘리고 희생하는 자리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싸워 나온 우리의 최후 목표는 사탄세계를 개인적으로 굴복시키고 가정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지상에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복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적인 목표요, 우리 생애의 투쟁 기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치 않는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탄을 개인적, 가정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굴복시켜야 할 책임과 사명이 엄연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한국이면 한국,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 독일이면 독일 등 각 나라에 있는 혈족과 혈색을 달리한 우리 식구들은 각기 자기 나라를 중심삼고, 사탄격멸 운동의 선두에 나서야 하겠습니까.

13-245

우리의 목표는 창조이상세계의 건설

사탄은 우리의 참부모를 유린했고, 우리의 참다운 가정, 참다운 형제를 유린했고, 참다운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유린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고난과 역경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나 깨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천주사적인 원한을 남긴 이 원수를 격퇴시키고, 하나님이 바리시던 평화의 세계, 사랑의 세계, 행복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된 우리의 책임인 것을 알기에 이를 위해 꺾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참다운 부모를 모시고, 참다운 형제로서 참다운 본향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참다운 본향, 참다운 땅을 찾아 참다운 조국을 건설하고, 참다운 조국을 중심으로 참다운 세계를 이루고, 참다운 세계를 중심으로 참다운 천주를 이루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 당시 인간 시조 앞에 부여하셨던 창조의 목적과 소망을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이것을 성취해 놓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여러분은 개척전도, 혹은 다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칠 자리에서 지치지 말고, 낙심할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후퇴할 자리에서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합니다. 용맹과 담력을 가지고 적진을 향하여 돌격해 나가, 천지를 대표한 하늘의 용사로서 기백을 잃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승리의 세계를 이루고 천주를 복귀하여, 이 한 많은 역사를 청산짓고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최초의 창조 이상세계를 이룩해야 하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싸워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 [RSS](#)